

무더운 여름에 드리는  
**청 렬 편 지**

사랑하는 경영지원본부 직원 여러분 !

8월은 습한 장마와 불볕 무더위로 자칫 무기력해지기 쉬운 달입니다. 하지만 또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로 그간 쌓여 왔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하고 행복한 8월을 맞이하여 직원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국내에서 건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던 해외여행은 계획대로 가셔야 하겠지만 아직 특별한 휴가계획을 세우시지 못했다면 가급적 국내 여행을 권합니다.

둘째.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단체와 업체에게 휴가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휴가철에 들뜬 마음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휴가중이라도 공직자로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업무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수청풍(兩袖淸風)”라는 고사성어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말은 두 소매에 맑은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중국 명나라때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던 우겸이 한 말로 지방근무를 마치고 수도로 올라갈 때 누군가 지방의 특산물이라도 가지고 가라고 권하자 “두소매에 맑은 바람만 넣고 가겠다” 라고 답했다는 데서 유래되어 청렴한 자세를 가르키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 여름은 그 어느 여름보다 무덥다고 합니다. 직원여러분들의 휴가에는 시원하고 맑은 바람(淸風)만 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6년 8월

경영지원본부장 이명환

